

科技院 테라와트급 레이저 개발
 三星電子 가정용 로봇 12월부터 양산
 日東製藥 세포系 항생물질 개발 출원

▲科技院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가 개발을 목표로 하고있는 1기가 D램가공에 필수장비인 1테라(10에 12제곱) 와트급 고출력 레이저를 개발하기 위해 소련의 세계적인 레이저 전문연구소인 쿠르차토 프윈 자력 연구소와 공동연구에 관한 협정을 최근 체결했다.

이에따라 두 기관은 공동연구·기술정보교환·교수 및 연구원을 교환하게 되며 오는 9월께 소련의 레이저 전문가 3~4명이 우리나라를 방문, 구체적인 연구 협의를 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올해부터 테라와트급 레이저 제작 및 응용연구를 계속 추진하면서 92년에는 국내 기업체와 공동으로 X선 식각장비를 개발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16메가 D램을 개발했으나 1기가 D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가와트급 레이저로는 불가능, 테라와트급 고출력 레이저의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三星電子

三星電子가 가정용 로봇

를 개발, 12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三星은 5가지 첨단센서와 전화선을 이용, 순찰 침입자감지 이상온도 감지 유리깨짐 방지 추락방지 등의 기능을 갖춘 로봇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가정용부문에서 획기적인 제품으로 평가되는 이 로봇은 종합연구소내 리빙연구실의 9명의 전문가가 팀을 구성, 22억원의 연구비로 2년에 걸쳐 완성됐다.

이 로봇은 인체의 열과 물체의 이동을 알아내는 적외선 및 초음파센서를 내장해 전면반경 1백 80도, 거리 9m 이내의 상황을 감지할 수 있으며 섭씨 38도이상 4도이하의 이상온도를 파악, 화재발생 등을 알려준다.

또 로봇 본체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떨어짐 방지센서와 로봇주위 4m 이내 반경에서 이상음의 주파수를 감지해 침입을 알리는 기능을 갖고 있다.

三星은 내년 2월부터 美國 판매법인(SEA)을 통해 美國 시장에 수출하고 하반기부터는 유럽, 日本에도 내보낼 계

획이다. 韓國型 홈로봇은 92년말께 개발할 예정이다.

日東製藥

日東製藥이 세포系항생제 신물질 개발, 물질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韓國新藥開發研究 조합에 따르면 日東製藥 연구소 金基源 박사팀은 3년간 신약개발 사업을 추진, 기존 항생제에 비해 약효 범위가 넓은 세포系항생물질을 찾아내 오는 8월 물질특허를 출원하게된다.

세포系항생제 신물질개발은 국내에서 렉키에 이어 두번째이다.

金基源 박사는 이번에 개발한 세포系항생제 신물질이 같은 구조를 가진 항생제 세포 타심에 비해 2~4배나 강한 항균력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日東제약은 특허출원을 끝낸뒤 제품화의 전단계인 독성 실험 및 동물실험에 나설 계획이다. <♣>